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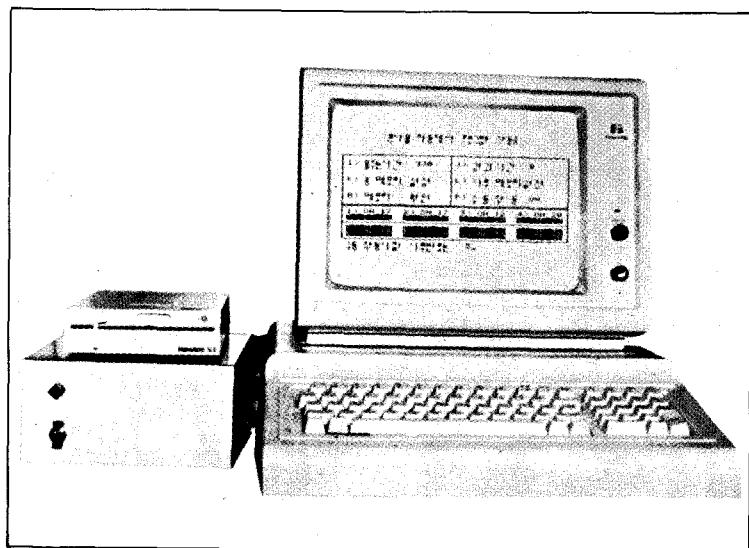
콩나물 자동 물 공급기

〈인천 세원기계〉

콩나물 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.

그러나 그 물을 제시간에 맞추어 인력으로 공급하다 보니 인건비의 부담과 번거러움은 이루 말 할수 없으며, 적기 적량의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콩나물의 상품적 가치가 좌우된다.

국내 최초로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여 주는 기계가 인천「세원기계」 대표 백두현씨에 의하여 개발되었다.



콩나물 자동 물 공급기가 순수한 콩나물 재배업자의 손에 의하여 개발, 현재 절찬리에 시판중에 있다.

콩나물을 기르다 보면 적시에 적량의 물이 살포되지 않아 잘 자라지도 않고 쉽게 썩는 예가 있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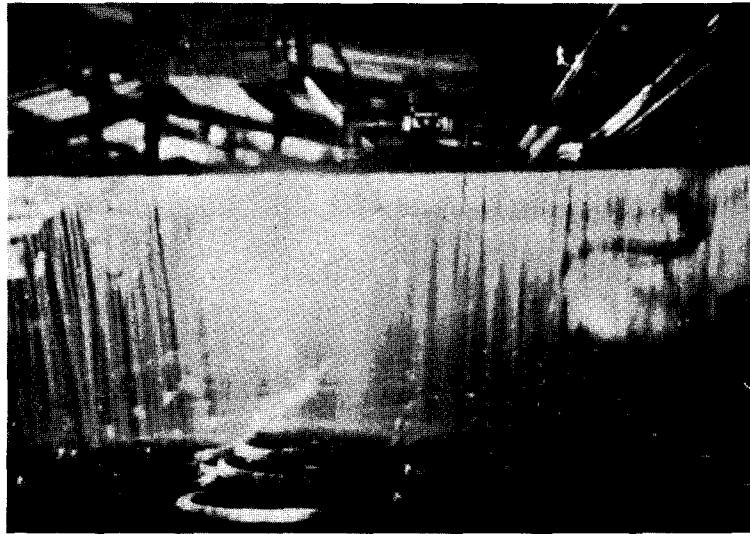
며, 물 공급을 인력에 의하기 때문에 번거러운 동시 과다히 지출되는 인건비등 인력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데에 착안을 두고 국내 최초로 컴퓨터가 콩나물을 재배 하게끔 설계된 이 기계는, 처음 원료인 콩만 시루

나 통에 앉쳐놓으면 출고시까지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없으며, 지하수의 온도와 콩나물시루 밑으로 흘려보내는 배수물의 온도까지 측정하여 컴퓨터 자동제어장치에 의하여 물의 공급량과 공급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.

지하실, 스라브지붕의 공장, 비닐하우스등 어느곳이나 설치가 가능하며, 최저콩, 한가마니 재배용부터 공장시설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시설이 가능하며 기계의 조작이 간편한 동시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.

기계의 구입 설치비가 소량의 주문제작으로 이루어 짐으로 아직은 가격이 약간 비싼것이 흠이지만, 대량 보급단계에 이르면 그 제작단가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.

구입자의 희망에 의하여 기계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며, 「리스」 품목으로 개발할 것도 검토중에



있다.

인건비의 절감등을 감안한다면

기계 설치후 1년여 정도를 사용하면 시설비의 회수가 가능하고, 설

치장소의 습기등 제반 여건에 따라 약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.

기계의 보증기간은 3년으로 1년까지는 공급자측에서 전액을 무료로 고장수리를 하여주고, 나머지 2년간은 실비 부품값만 맡고 고장수리를 하여주고 있다.

본 콩나물 자동 물 공급기의 노하우는 컴퓨터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으로서 「프로그램 보호법」에 따라 향후 50년간(서기2037년까지) 보호 받을 수 있다.

콩나물에 물 공급시간 이외에는 컴퓨터를 자녀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. •

인천 세원기계 제작,
전화 (032)424 - 1834

계통도

